



얼마전 입적한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편에서는 ‘역시 큰 스님다운 법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만일 그 법어를 들은 사람이 확 막힌 과학자라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은 의미없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지식이나

만 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 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주장도 언어에의 집착을 벗어나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보자.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부모들의 배움을 받으면서 기차역으로 향하다가 언덕에 올라 자신의 고향을 뒤돌아 보았다. 멀리 산과 시냇물의 모습이 보이기에 그는 속으로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구나’ 말했다. 그후 십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고향에 오니 이미 고향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옛산은 깎여 골프장이 들어섰고, 시냇물에는 비닐봉지 뿐 물방개는 보이질 않는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구나’ 다시 하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그는 수십년후 고향을 다시 찾았다. 비록 고향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인절도 간데 없건만,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곳은 역시 고향밖에는 없다고 느껴졌다. 그는 마음 속으로 되뇌었다.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구나.’

비록 과거의 모습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곳은 그에게 엄연히 고향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물이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물에 대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언어적인 약속을 해왔다. 그것은 그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나?’고 물어 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인간이란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한 것을 비교해 보라.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뜻 그럴 듯 하게 여겨지지만, 그 과학자는 언어를 수단으로 주장하려는 ‘의미’를 보지 않고, 언어자체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물은 물이다. 본질은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코 산은 물이 될 수 없으며, 물은 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고향을 떠나면서 한 말과 수십년 후 다시 고향을 찾아 한 말이 겉으로는 같을지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나중의 말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도달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증법적 사고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의 참다운 의미가 파악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의 시를 읽어 보자.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가고 봄오니

해바뀐 듯 하지만
보거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이름난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낙엽에 ‘가화만사성’, ‘성공’, ‘하면 된다’ 등 여러가지 글자를 새겨 파는 가게들이 있다. 위의 시도 꽤 커다란 낙엽에 새겨져 있는 것 중의 하나였는데, 아마 어떤 노스님의 가르침을 슬쩍한 모양이다.

이 시는 변화하는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분별심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다. 산은 그저 산이요, 물은 그저 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산과 ‘협악한’ 산 등으로 분별한다면, 차별이 생기고, 이

러한 차별심은 곧 나의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만일 아내들이 슈퍼맨인 옆집 남자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자기 남편을 비교하면서 눈물짓고, 남편들은 옆집 아가씨의 날씬한 허리와 자기 부인의 떡 벌어진 배를 비교하면서 한숨짓는다면, 부모들이 만물박사인 이웃집 아이와 자기 자식을 비교하면서 ‘누구 닮아 이 모양이냐’, ‘전생의 원수’라고 탓한다면 살아가는 괴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괴로움은 누구에 말미암은 것인가? 산과 물이 그러한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진대, 그러한 차별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오늘도 산과 물은 있을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다. ☞